

에세이 제목	봄을 선사해준 교수님
제출학생 학과	기계재료공학교육과
<p>2018년 3월부터 느껴온 봄의 충남대학교는 정문부터 서문, 쪽문, 기숙사 등 가는 곳마다 활짝 핀 꽃들과 시끌시끌한 강의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강의실은 고요하였으며 봄에 느껴왔던 충남대학교와 정반대인 2020년 3월이 찾아왔다. 처음 실행하는 비대면 강의였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3월, 곧 만날 동기들과 후배들 선배들 교수님들을 기대하며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제대로 된 강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의 전파는 곧이어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결국 국내 최초 충남대학교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되고 말았다. 온라인 강의를 좋은 줄 알았다. 나는 본가와 학교의 지역이 달라 개강하지 않는 학교에 서로부터 본가에 내려와 사이버 강의를 들으니 여유로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부모님과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며 아침마다 일어나야 하는 괴로움이 없어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막상 집에서 하러니 자꾸 미루게 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모르는 문제나 과제가 있을 때 동기들이나 교수님께 여쭙보고 이야기 나누면 끝났을 텐데 이 모든 게 처음인지라 교수님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카톡이나 통화로만 궁금증이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 불편하기도 했다. 사실상 학업에 임하는 시간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저 녹음된 강의만 올리는 수업, 매주 과제를 내주며 진행하는 수업 등 이러한 수업을 통해 과연 내가 수업에 착실히 임하고 교수님들이 전해주시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었다. 사범대학교 학생으로서 좋은 교직, 좋은 전공을 듣고 싶은 욕심과 매주 수많은 과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p> <p>그러나 내 의문이 드는 것이 무색하게 한 교수님은 팀 활동과 시험, 과제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다. 바로 월요일 교직 수업이었던 교육공학 및 교육 방법 수업 K 교수님이다. 나는 하루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바로 나태해지는 성격이다. 스스로 관대한 편이라 누군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바로 나태해지기일 수인데 이 수업을 통해 적극 참여하는 학생이 되었고 교수님은 좋은 수업을 만들어 내셨다. K 교수님은 클래스팅이라는 앱을 활용하셨다. 처음 수업에 임할 때 4~5명의 소그룹을 만들어주셨다. 4~5명의 소그룹으로 각각 팀별로 토론과 토의를 하여 수업의 방향을 찾고 수업 목표와 계획에 맞는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교수님은 매주 월요일 수업 전 배울 내용에 대해 미리 자료를 올려주시고 수업이 끝난 뒤 그 수업에 맞는 과제물을 4개를 클래스팅 앱에 올려주셨다. 그리고 4개의 과제물 중 팀원들끼리 상의하여 마음에 드는 과제를 골라 일주일간 그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를 수행한 뒤 클래스팅 앱에 올리면 교수님이 확인하고 그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달아주셨다. 클래스팅 앱을 활용해 팀별 과제를 올리게 된다면 다른 팀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대면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진 이 시점 팀 활동을 온라인 수업과 카톡 방을 통해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에 대한 생각을 매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셨다.</p>	

팀 발표도 하게 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법이 다른 사람의 교육 방법에 대해 들어 보는 것뿐만 아닌 다른 팀원들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며 팀별마다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졌고, 팀원들끼리 매주 카톡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하고 팀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 협동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 활동은 찬반 토론 활동이었다. 토론 주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위해 체벌이 필요한가?’ 였다. 나는 당연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무차별적인 체벌은 옳지 못한 것이며 학생은 지도하고 보호해 주는 대상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학교는 사회적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나 행동 규범을 가르치고 학생이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에게 불쾌감을 주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정하도록 체벌이 필요하다. 체벌은 결국 학습효과를 증진 시키기 위한 강화의 수단으로서 교육적 자극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팀원들이 대다수라서 엄청나게 놀랐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팀원은 학생의 잘못을 훈육할 때 사제 간의 소통과 학생의 본질적인 잘못 해결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여 훈육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각자 생각하는 훈육의 방식이 달라 팀원들끼리 한동안 카톡으로 찬반 토론을 나눈 기억이 가장 인상 깊다. 나와 다른 교육적 사상을 듣게 되며 무조건 필요하다는 마음이 변화되었다. 또한, 마지막 수업 때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 팀의 발표를 듣고 나서 교수님은 1등 팀을 뽑겠다며 클래스팅에서 확인하라 하셨다. 클래스팅에 적혀 있는 1등은 모든 팀이라며 훌륭하다고 적혀 있는 글을 보며 괜히 뿌듯하고 그동안 팀원들과 교수님께 감사함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을 느꼈었다.

교수님은 수업을 듣는 인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과제를 진행하다 보니 다른 수업보다 확인하는 시간이 배로 늘어나고 교수님은 수업 전 자료를 올려주셔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셨다. 또한, 과제를 한 가지만 내주시는 게 아니라 3~4개의 과제를 올려주셔서 그중에서 골라서 과제를 실행했으니 매주 3~4개의 과제를 만드신 셈이다. 교수님의 적극적인 수업이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수와 학생들이 갈수록 서로 무감정으로 대하고 사제 간의 정이 사라진다는 요즘, 온라인을 통해 만난 K 교수님은 더없이 충만한 수업과 따뜻함을 주셨다.

이 수업을 통해 온라인 팀별 활동 및 수업 활동들은 예비교사로서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수업을 만들어 낼지에 대한 도전정신을 자극하고 동시에 앞으로 미래 교육에 신선한 경험을 선사해 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을 듣게 되면서 자칫 게을러질 수 있는 일상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의 2020년 1학기 월요일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을 듣는 오후 4시가 즐겁고 설레며 기대로 가득 찬 봄과 같은 수업이었다.